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결혼 및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이연숙¹, 이경희², 오진영^{3*}

¹신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³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과정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of a College Student on Marriage and Childbirth Intention –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Mediating Effect

Ryoun-Sook Lee¹, Kyung-Hee Lee², Jin-Young Oh^{3*}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gyeong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cheonjeil College.

³PhD Student, Nursing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결혼 및 출산의도와 관계와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일개 대학의 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SPSS 22.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Fisher's exact 검정,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위하여 Sobel test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정폭력 경험 학생이 미경험 학생에 비하여 출산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44$),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도 낮았다($p\leq .000$, $p=.001$). 자기효능감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 모두의 결혼의도와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었다($p=.001$, $p\leq .000$). 결혼 및 출산의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대학생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제어: 가정폭력, 결혼의도, 출산의도,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and marriage and childbirth intentions. It also tried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The survey was conducted structured questionnaire targeting 291 college students. Data analysis was used SPSS 22.0 for t-test, ANOVA, Fisher's exact test, multilogistic regression and Sobel for mediating effect analysis. As a result, students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had lower childbirth intentions than those who had not experienced($p=.044$), and their self-efficacy and social awareness were lower($p\leq .000$, $p=.001$). Self-efficacy was related to marriage and childbirth intentions of both students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nd those who did not ($p=.001$, $p\leq .000$).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marriage and childbirth intentions. It is necessary for college students to properly recognize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o Improve their self-efficacy, and social efforts to lower domestic viole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needed.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marriage intention, childbirth intentio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Suncheonjeil College Industry-Academic Foundation Research Grant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Jin-Young Oh(julia4197@naver.com)

Received November 28, 2020

Revised January 18,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1. 서론

1.1 연구필요성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이자 문제점으로 부각 되면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우리나라 인구동태에 따르면 향후 출산율을 기증할 수 있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2012년 이후 7년째 줄어들고 있고, 여성 1명이 출산하는 합계출산율도 2018년 0.98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의 원인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 교육과 생활수준의 변화 등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1].

부모의 언어, 행동, 습관 등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녀는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부모의 결혼생활은 자녀의 결혼 및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다[1]. 특히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성인이 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1].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최근 4년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에 이르고, 2017년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담건수 28만 9천여 건 중 62.4%가 가정폭력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기에 부모 간에 폭력행동을 목격한 경험 중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목격한 경험은 33.2%, 부모 간에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경험 12.7%, '허리띠나 몽둥이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것'을 목격한 경험이 3.6%였다(4).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가정불화 속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학습하고 피해자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가해자로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는 또 다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5].

자기효능감은 가정폭력 노출 대상자의 회복과 관련이 있으며[7], 가정폭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 오고 있다[6, 7, 32].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인간 상호간의 지지 행위로서 한 개인이 가족, 동료, 전문가, 친구, 친척 등과의 일련의 상호작용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8-9]. 가정폭력 경험

에서 사회적 지지는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또한 사회적 지지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강력한 중재요인으로 심리적 적응을 증가 시키게 된다[11].

가정폭력과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결혼 및 출산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결혼이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가정폭력 경험 대학생의 결혼 및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는지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 (1)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 (2)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결혼의도, 출산의도를 비교한다.
- (3) 대학생의 가정폭력 유형별 결혼의도, 출산의도,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학생의 결혼의도, 출산의도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가정폭력 개념 및 유형, 실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가정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그 밖의 폭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은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자유구속 등을 말하고, 정서적 폭력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친정 및 시댁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의 통제, 간섭과 의심, 기물을 파손하거나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간접적인 것도 포함된다. 성적 폭력은 부부강간을 비롯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등을 의미하며, 경제적 폭력은 경제활동을 통제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는 행위, 생활

비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기타 폭력에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결정을 강요당하는 행위, 낙태 강요, 방임, 유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강제로 빼앗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12].

2016년 폭력 발생실태에 의하면 배우자에 대한 폭력 발생이 41.5%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신체적 폭력 7.7%, 정서적 폭력 12.5%, 성적 폭력 2.2%, 경제적 폭력 2.5%, 통제 37.7%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3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부부폭력 발생률과 신체적 폭력 발생률에서는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성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결과이다[4]. 같은 조사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 발생은 27.6%로 신체적 학대가 7.3%, 정서적 학대가 25.7%, 방임 2.1%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 중 직접경험은 71.1%가 신체적 폭력이었으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48.1%)',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18.3%)', '허리띠나 몽둥이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4.7%)'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한 경우를 29.6%가 경험하였고, 방임도 6.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간접경험은 16.3%가 경험하였고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12.7%)', '허리띠나 몽둥이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3.6%)',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는 것(33.2%)' 등을 경험하였다[14].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아동방임 및 학대를 경험한 아동응답자 중 신체적 폭력 27.7%, 정서적 폭력 38.6%, 방임 25%로 나타나, 이는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13].

2.2 가정폭력 경험과 결혼 및 출산의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나 또는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반복적인 폭력과 불안감으로 감정조절기능과 충동조절능력에 손상을 입게 된다. 또한 부모의 폭력행동을 모방하거나 공격성, 과잉행동 같은 특성을 보이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 결혼을 선택하거나 자녀의 출산, 배우자 및 자녀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또는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1].

2.3 가정폭력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는 어떠한 행동을 수행할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5], 자기효능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강화에 기여하며, 인간의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직접 적용된다[16].

반듀라(A. Bandura)는 자기효능을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으로 성취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Modeling),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정서적 각성(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 등 4가지 자원으로 구분하였다[16, 17]. 성취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은 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효능감을 형성하고 실패는 효능감을 낮추게 된다.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 Modeling)은 유사한 타인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델링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에 대한 예측성과 통제성을 제공한다.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주위 사람들의 언어적 설득이나 격려가 효능감을 증진시키며, 긍정적 피드백은 효능감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 피드백은 효능감을 감소시킨다. 생리적·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는 생리적, 정서적 상태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다[17]. 이는 자신의 생리적 상태에 대한 지식과 주위사람들의 인식 및 평가가 중요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극제로 작용을 하게 된다[15].

가정폭력 경험 여성의 자기효능감 향상은 폭력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7]. Lee(2010)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 우울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6].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사이코드라마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가정폭력 경험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정폭력 노출 대상자의 회복

에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6, 7, 32].

2.4 가정폭력과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는 스트레스 사건과 개인의 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 환경의 영향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다[18].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인간 상호간의 지지 행위로서 한 개인이 가족, 동료, 전문가, 친구, 친척 등과의 일련의 상호작용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8, 9]. 이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중재요인으로 심리적 적응을 증가 시킨다[11].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19, 20], 특히 행동의 감정적·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주므로 자율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21]. 사회적지지는 여러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완충효과를 주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22]. 또한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사회적지지는 건강한 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준다[23].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남소재 일개 대학 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결혼 및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 및 출산의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서술연구이다.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남, 여 성비를 고려하여 학과를 선정하였으며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 여 성비를 고려하여 편의표집 한 후 해당 학과 학생 중 본 연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도중이어서도 원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설문지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2인과 간호학전문가 1인의 자문을 통하여 완성하였다. 최종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13문항, 결혼 및 출산의도관련 4문항,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대한 질문인 간접가정폭력 경험 13문항,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경험한 가정폭력에 대한 질문인 직접가정폭력 경험 18문항, 자기효능감 22문항, 사회적지지 25문항 등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2 연구대상

G- Power에 의한 양측검정, Effect size 0.3, 유의확률 0.05, power 0.95에 의한 대상자수는 147명이었고,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대상 학생은 291명이다. 기혼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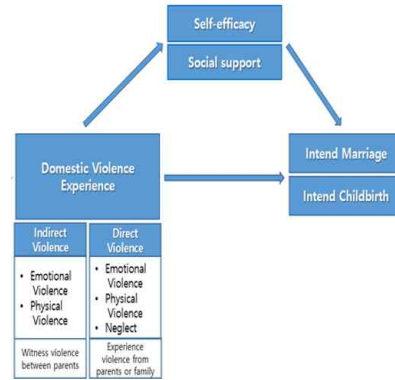


Fig. 1. Structure of study

3.3 연구도구

3.3.1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Park(2016)이 개발한 신체적 가정폭력 경험 13문항과 정서적 가정폭력 경험 18문항 등 총 31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24].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 간 폭력을 목격한 간접폭력 경험은 Cronbach's alpha 0.911, 직접 폭력 경험은 0.930이었다.

3.3.2 결혼의도

결혼의도는 La(2007)가 고등학생의 결혼 및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25]. La(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의도를 5문항으로 하여 질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은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만 활용하여 5점 척도로 하였다.

3.3.3 출산의도

출산의도는 La(2007)가 고등학생의 결혼 및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8문항 중 ‘학생은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만 활용하여 5점 척도로 하였다.

3.3.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Rayckman, Robbin & Cantrell(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Hong(1996)이 변안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22문항[26, 39]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0.857 이다.

3.3.5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Park(1987)이 개발하고, Park(2016)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사회적지지 측정 척도 25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24, 27],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0.983 이다.

3.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여 실수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가정폭력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 동질성 검사를 하였다. 가정폭력 경험자와 미경험자의 집단 간 비교는 t-test와 ANOVA로 검증하였다. 다중응답의 경우 Fisher's exact 검정을, 설명변수들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coefficient로 산출하며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양측검정 $p < .05$ 에서 채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특성

4.1.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학생이 51.3%, 남학생 48.7%였다. 연령은 20~24세가 58.1%로 가장 많았다. 동거자수로는 10.3%가 동거자수가 없다고 하였고, 3명 이상이 47.4%로 가장 높았고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3명 이상의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경험 학생이 51.9%로, 미경험 학생 41.9%보다 높았다.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의 38.9%, 어머니 40.9%가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부모님의 학력이 초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아버지 2.7%, 어머니 2.1%였다. 62.2%가 부모님 모두 직업이 있었고, 가족의 경제 상태로는 18.5%가 월 300만원 미만이었다.

4.1.2 가정폭력 관련 특성

가정폭력 경험으로는 전체 291명 중 162명(55.7%)이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48.6%가 가정폭력을 경험한데 비하여 여학생은 57.4%가 경험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부모님의 학력이 초졸 인 경우와 대졸 이상인 경우가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i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inexperienc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291 (%)	Domestic Violence		χ^2 or t(p)
			experience (n=162)	Inexperience (n=129)	
			n(%)	n(%)	
Sex	Male	142(48.7)	69(48.6)	73(56.6)	5.631 (.018)*
	Female	149(51.3)	93(57.4)	56(43.4)	
Age	≤19	104(35.7)	59(36.4)	45(34.9)	0.282 (.868)
	20~24	169(58.1)	94(58.0)	75(58.1)	
	≥25	18(6.2)	9(5.6)	9(7.0)	
Living families	0	30(10.3)	18(11.1)	12(9.3)	4.493 (.213)
	1~2	123(42.3)	60(37.0)	63(48.8)	
	3≤	138(47.4)	84(51.9)	54(41.9)	
Education (Father)	elementary	8(2.7)	7(4.3)	1(0.8)	6.755 (.323)
	Middle~High	170(58.4)	92(56.8)	78(60.4)	
	College~Univ.	88(30.2)	46(28.4)	42(32.6)	
	Graduate	14(4.9)	10(6.2)	4(3.1)	
Education (Mother)	No Response	11(3.8)	7(4.3)	4(3.1)	4.949 (.555)
	elementary	6(2.1)	4(2.6)	2(1.5)	
	Middle~High	166(57.0)	88(54.3)	78(60.5)	
	College~Univ.	91(31.3)	53(32.7)	38(29.5)	
Income (1,000 Won)	Graduate	14(4.8)	10(6.2)	4(3.1)	6.985 (.538)
	No Response	14(4.8)	7(4.3)	7(5.4)	
	≤300	54(18.5)	29(17.9)	25(19.4)	
	300~499	102(34.9)	65(40.1)	37(28.7)	
	500~799	97(33.2)	50(30.9)	47(36.5)	
Income (1,000 Won)	800~999	20(6.8)	10(6.2)	10(7.7)	
	1000≤	18(6.1)	8(4.9)	10(7.8)	

4.2 유형별 가정폭력 경험

4.2.1 가정폭력 직접경험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직접 경험한 가정폭력은 전체 291명 중 162명(55.7%)이 연 1~2회 이상,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였다. 전체 학생 중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유형으로는 10.3%가 '빳자루나 몽둥이로 맞은' 경험, 5.5%는 '사정없이 마구 맞은' 경험이 있었고

9명(3.1%)은 ‘가족에 의하여 흥기로 위협하거나 상처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정서적 폭력으로는 ‘고함이나 소리를 지르는’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43.6%로 가장 많았고,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가 30.6%였다. 19.2%는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하였다.

직접폭력 경험 중 방임 관련은 12.0%가 ‘나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았다’고 하였고, 10.7%는 ‘용돈이나 생활비를 가족이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9.3%는 ‘어릴 적 철지난 옷을 입어도 가족이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8.9%는 ‘어릴 적 제 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6.5%는 ‘아프거나 몸에 상처가 나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Table 2

Table 2. Types of direct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Type	Direct Domestic Violence(N=291)					In experience
	almost every day	1-2 times/week	1-2 times/month	1-2 times/year	Total	
Push body hard	0(0.0)	3(1.0)	5(1.7)	12(4.1)	20(6.9)	271(93.1)
Slap the face	0(0.0)	2(0.7)	3(1.0)	22(7.6)	27(9.3)	264(90.7)
Kicking or Punch	0(0.0)	1(0.3)	6(2.1)	18(6.2)	25(8.6)	266(91.4)
Beating on Broom or stick	0(0.0)	1(0.3)	7(2.4)	22(7.6)	30(10.3)	261(89.7)
Slap without permission	0(0.0)	1(0.3)	6(2.1)	9(3.1)	16(5.5)	275(94.5)
Threatening or have wound with a weapon	0(0.0)	2(0.7)	3(1.0)	4(1.4)	9(3.1)	282(96.9)
say curse or insulting	1(0.3)	8(2.7)	25(8.6)	55(18.9)	89(30.6)	202(69.4)
Yelling or speak loudly	2(0.7)	7(2.4)	34(11.7)	84(28.9)	127(43.6)	164(56.4)
Close the door so hard with displease	0(0.0)	5(1.7)	13(4.5)	37(12.7)	55(18.9)	236(81.1)
harassing Venomous words	1(0.3)	5(1.7)	10(3.4)	40(13.7)	56(19.2)	235(80.8)
Trying to throw an object	0(0.0)	4(1.4)	10(3.4)	28(9.6)	42(14.4)	249(85.6)
Break things or kick with feet	0(0.0)	3(1.0)	7(2.4)	17(5.8)	27(9.3)	264(90.7)
Trying to throw an object	0(0.0)	2(0.7)	6(2.1)	19(6.5)	27(9.3)	264(90.7)
Check every money use	3(1.0)	2(0.7)	14(4.8)	16(5.5)	35(12.0)	256(88.0)
don't care wear that unsuitable season clothes	2(0.7)	2(0.7)	7(2.4)	16(5.5)	27(9.3)	264(90.7)
don't giving food on time when young	4(1.4)	1(0.3)	9(3.1)	12(4.1)	26(8.9)	265(91.1)

don't care that watch pornography books or videos	2(0.7)	0(0.0)	3(1.0)	9(3.1)	14(4.8)	277(95.2)
don't care that do not following public ethics	1(0.3)	0(0.0)	3(1.0)	9(3.1)	13(4.5)	278(95.5)
don't care that on sick or hurt	2(0.7)	1(0.3)	6(2.1)	10(3.4)	19(6.5)	272(93.5)
don't belief any say	2(0.7)	2(0.7)	10(3.4)	21(7.2)	35(12.0)	256(88.0)
don't allowance or living expenses	4(1.4)	2(0.7)	12(4.1)	13(4.5)	31(10.7)	260(89.3)

4.2.2 가정폭력 간접경험

가정폭력 간접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에서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174명(59.7%)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유형별로는 51.2%가 부모 간 ‘고함이나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35.4%는 ‘화가 나서 방문을 세계 닫거나 벽을 치는’ 경험을 하였다. 30.2%는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7.9% 학생은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Types of indirect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Type	Indirect Domestic Violence(N=291)					In experience
	almost every day	1-2 times/week	1-2 times/month	1-2 times/year	Total	
Push body hard	0(0.0)	1(0.3)	5(1.7)	17(5.8)	23(7.9)	268(92.1)
Slap the face	0(0.0)	0(0.0)	6(2.1)	6(2.1)	12(4.1)	279(95.9)
Kicking or Punch	0(0.0)	1(0.3)	5(1.7)	10(3.4)	16(5.5)	275(94.5)
Beating on Broom or stick	0(0.0)	0(0.0)	5(1.7)	9(3.1)	14(4.8)	277(95.2)
Slap without permission	0(0.0)	0(0.0)	2(0.7)	7(2.4)	9(3.1)	282(96.9)
Threatening or have wound with a weapon	0(0.0)	0(0.0)	1(0.3)	3(1.0)	4(1.4)	287(98.6)
say curse or insulting	3(1.0)	7(2.4)	34(11.7)	43(14.8)	87(30.2)	203(69.8)
Yelling or speak loudly	3(1.0)	11(3.8)	36(12.4)	99(34.0)	149(51.2)	142(48.8)
Close the door so hard with displease	1(0.3)	6(2.1)	28(9.6)	68(23.4)	103(35.4)	188(64.6)
harassing Venomous words	0(0.0)	6(2.1)	15(5.2)	34(11.7)	55(18.9)	236(81.1)
Trying to throw an object	0(0.0)	4(1.4)	10(3.4)	34(11.7)	48(16.5)	243(83.5)

Break things or kick with feet	0(0.0)	3(1.0)	9(3.1)	26(8.9)	38(13.1)	253(86.9)
throw an object	0(0.0)	1(0.3)	7(2.4)	17(5.8)	25(8.6)	266(91.4)

4.3 가정폭력 유형별 결혼 및 출산의도

4.3.1 가정폭력 유형별 결혼의도

직접 가정폭력 중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3.40±1.00)이 경험한 학생(3.35±0.94)보다 결혼 의도가 높았다. 신체적 폭력 경험에서도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3.40±0.98)이 경험한 학생(3.22±0.89)보다 높았다.

가정폭력 간접경험을 한 학생의 경우에도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3.48±0.96)이 경험한 학생(3.30±0.97)보다 결혼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 경험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3.38±0.99)이 경험한 학생(3.25±0.75)보다 높았다. 방임을 경우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3.38±0.99)이 경험한 학생(3.33±0.92)보다 높았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3.2 가정폭력 유형별 출산의도

Table 4. Relation between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and marriage and childbirth intentions

Categories	Marriage intention			Childbirth intention				
	M	SD	t(p)	M	SD	t(p)		
Indirect Violence	Emotional	Experience	3.30	0.97	-1.605	3.42	1.18	-1.896
		Inexperience	3.48	0.96	(.110)	3.66	0.98	(.059)
	Physical	Experience	3.25	0.75	-0.696	3.32	1.19	-0.994
		Inexperience	3.38	0.99	(.487)	3.54	1.10	(.321)
Direct Violence	Emotional	Experience	3.35	0.94	-0.444	3.43	1.16	-1.470
		Inexperience	3.40	1.00	(.657)	3.62	1.04	(.143)
	Physical	Experience	3.22	0.89	-1.174	3.22	1.25	-2.026
		Inexperience	3.40	0.98	(.241)	3.58	1.07	(.044)
Neglect	Experience	3.33	0.92	-0.381	3.32	1.07	-1.771	
	Inexperience	3.38	0.99	(.703)	3.58	1.11	(.034)	

직접폭력을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이 경험 한 학생보다 출산의도가 높게 나타나 신체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출산의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44$). 방임

의 경우에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3.58±1.11)이 경험한 학생(3.32±1.07)보다 출산의도가 높았다($p=.034$). 간접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출산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4.4 가정폭력과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관계

가정폭력 경험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두 요인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간접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의 정서적 폭력의 경우 자기효능감($p=.000$), 사회적지지($p=.001$)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경험 학생은 자기효능감($p=.004$)이 더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접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p=.000$)이 사회적지지($p=.000$) 모두 높은 관련성이 있었으며, 신체적 폭력 경험 학생은 자기효능감($p=.002$), 사회적지지($p=.001$)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방임을 경험 학생도 자기효능감($p=.001$), 사회적지지($p=.001$) 모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Categories	Indirect Violence		Direct Violenc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Emotional	Physical	Emotional	Physical Neglect		
Indirect Violence	1	.644** (.000)	.606** (.000)	.508** (.000)	.384** (.000)	-.240** (.000)
Direct Violence	Physical		1	.493** (.000)	.566** (.000)	.447** (.000)
	Emotional			1	.751** (.000)	.569** (.000)
Self-efficacy	Physical				1	.594** (.000)
	Neglect					1
Social support						1

* $p<.05$, ** $p<.01$.

4.5 결혼의도, 출산의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관계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가 결혼의도 및 출산의도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결혼의도($p=.001$), 출산의도($p=.000$) 모두 관련이 있었으나 사회적지지는 결혼의도, 출산의도 모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Table 6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rriage intention, birth intentio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Categorie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Marriage intention	Childbirth intention
Self-efficacy	1	.283** (.000)	.188** (.001)	.241** (.000)
Social support		1	.071 (.225)	.026 (.661)
Marriage intention			1	.676** (.000)
Childbirth intention				1

4.6 가정폭력 경험 학생의 결혼의도, 출산의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매개변수(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독립변수(가정폭력 경험)가 종속변수(출산의도, 결혼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결혼의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이 어려웠다. 그러나 간접 가정폭력 경험학생에서 가정폭력, 사회적지지, 결혼의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p=.045$) sobel test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가 유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able 7.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Childbirth Intention

Step	Dependent Variation	Independent Variation	b	s.e	β	t	p	Modified R ²
1	Social support	Experience	-0.823	0.217	-0.605	-3.802	.001	.341
2	Marriage Intention	Experience	0.685	0.325	0.388	2.106	.045	.117
3	Marriage Intention	Experience	0.948	0.407	0.538	2.328	.029	.122
		Social support	0.320	0.299	0.247	1.068	.296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결혼과 출산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로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진입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결혼과 출산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가정폭력 경험 학생의 결혼 및 출산의도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와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정폭력 경험은 직접 경험과 부모 간 폭력을 경험한 간접경험으로 구분하여 신체적, 정서적, 방임에 대한 경험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5.1.1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은 전체 291명 학생 중 55.6%인 162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 Cho(2006)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학생이 46.6%였고, 직접 학대를 당한 경우가 53.4%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28]. 그러나 Cho & Cho(2011)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71.4%라고 한 수준보다는 낮은 결과이다[29]. 성별로는 남학생의 42.6%가 가정폭력을 경험한데 비하여 여학생은 57.4%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정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부모님의 학력이 중졸 미만인 경우와 대학원이상인 경우에서 더 많은 가정폭력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중,고졸이나 대졸 부모에서 가정폭력 경험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Choi(1992)가 부부간 폭력실태를 연구한 결과에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한 좌절감과 직업에 대한 더 많은 불만을 갖고 폭력을 더 많이 행한다는 결과와 일부 부합한 결과이다[30]. Kim(1987)은 아내의 폭력 경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구타를 많이 당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31].

5.1.2 가정폭력 경험과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관계

가정폭력 경험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관계에서 가정폭력 경험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3.31 ± 0.45 인데 반하여 가정폭력 미경험학생의 자기효능감은 3.60 ± 0.52 로 나타나 가정폭력 미경험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p=0.000$). 이는 Kang(2010)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3.22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32].

가정폭력과 사회적지지 체계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1.824, p=.069$). 그러나 가정폭력 미경험 학생의 99.2%가 1인 이상의 인적 지지체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하여 가정폭력 학생은 경험 학생은 95.7%로 나타났고($p=.081$), 가정폭력 경험 학생은 4.3%, 미경험학생 0.8%가 어려울 때 도와주거나 의지가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여 가정폭력 노출 아동 및 청소년의 지

지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1.3 가정폭력 경험 유형

가정폭력 간접 경험에서 부모 간 ‘고함이나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51.2%가 목격하여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화가 나서 방문을 세계 닫거나 벽을 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도 35.4%였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학생은 5.5%,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처를 낸 상황’ 목격은 1.4%였다.

Choi(1992)는 가정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때리고 발로 차는’ 경험이 45%였다고 하였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짓밟고 목을 조르는’ 행위가 55%, ‘흉기로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16%라고 하였다(30).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Kim & Cho(2011)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부모 간 폭력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40% 아동이 가벼운 폭력을 한번 이상 경험했으며, 심한 폭력은 약 5%의 학생이 경험했다. 아동기 학대 피해경험은 정서적 방임이 가장 많았다[41]. 이는 본 연구에서 51.2%가 부모 간 ‘고함이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여 좀 더 높은 결과이다.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찬’ 것을 목격한 경험도 13.1%였는데, 이는 Kim & Cho(2011)의 연구결과인 5%보다 높은 결과이다[33].

5.1.4 가정폭력과 결혼 및 출산의도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결혼의도가 더 높았고, 가정폭력 경험 학생은 38.9%만 결혼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여, Oh(2014)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4.5%가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결과보다 매우 낮은 결과이다[34].

직접 신체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출산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44$). 어릴 적 방임을 경험한 학생도 출산의도가 낮게 나타나($p=.034$), 직접 가정폭력의 경험은 출산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합계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통계청, 2018)을 감안할 때 묵과할 수 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5.1.5 가정폭력 경험과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관계

직·간접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낮고 사회적지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Cheon, Keum & Park(2018)은 사회적 지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켜 자립의지를 높인다고 하

였고 이는 자립의지에 대해 간접효과 뿐 아니라 직접효과를 높인다고 하였다(36).

Kim, Kim & Oh(2010)는 국내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 영향에 대하여 돌봄 기관 등 사회적지지를 위한 기관 활용 기회가 있는 여성이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37). 이들 연구는 가정폭력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폭력 경험 학생이 결혼 및 출산 등 발달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적지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5.1.6 결혼의도, 출산의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가 결혼의도와 출산의도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결혼의도와 출산의도 모두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출산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000$). 그러나 사회적지지는 대학생의 결혼의도, 출산의도 모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p=.225$, $p=.661$), 이는 Jang & Kim(2014)이 302명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사회적지지는 심리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간에 조절효과가 있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38].

5.1.7 결혼의도 및 출산의도에서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결혼의도나 출산의도가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직접경험과 종속변수인 결혼의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정이 어려웠다.

가정폭력 간접경험학생에서 가정폭력, 사회적지지, 결혼의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p=.045$), sobel test 매개효과 검정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가 유의하지 않아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 여성의 자기효능감 향상은 폭력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7], 사회적 지지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강력한 중재요인[11]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혼의도나 출산의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시간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워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5.2 결론

전체 291명 학생 중 55.7%가 직접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간접 폭력도 174명(59.7%)이 경험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57.4%)이 남학생(4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결혼의도와 출산의도가 낮게 나타났고 특히 출산의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44$). 가정폭력 경험학생은 자기효능감($p\leq.000$), 사회적지지($p=.001$)도 낮았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 모두의 결혼의도와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었다($p=.001, p\leq.000$).

성인이 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며 강력한지지 체계로서 가정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훈육의 일종으로 여기며, 가족 간 폭력은 개인 가정사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는 아직도 결혼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높은 역할기대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기대 불균형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처벌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의 확충을 제언한다. 현재 가정폭력은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피해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쉼터 등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사회구성의 기본이 되는 안정된 가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K. H. Shon, N. H. Kim & E. S. Lee. (2019). The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 719-728. DOI : 10.35873/ajmahs.2019.9.1.072
- [2] J. H. Kim. et al. (2019). "2019 Domestic Violence Survey Research".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vailable from: <http://www.prism.go.kr/> (accessed Sep. 28, 2020)
- [3]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9). "Announcement of recommendations on domestic violence complaints". Seoul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vailable from: <https://www.police.go.kr/> (accessed Sep. 28, 2020)
- [4] H. K. Jang. et al. (2016). "2015 Family Survey Analysis Research".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vailable from: <http://www.prism.go.kr/> (accessed Sep. 28, 2020)
- [5] Y. W. Lee. (2019).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n Dating Violence Experience o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ed Effect of Egogram Ego State*. Master dissertation. Gimcheon University. Gyeongbuk.
- [6] J. W. Lee. (2010). Intervention Effect of Group Counseling in Improvi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ongruent Communication Style among Female Victims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4), 103 - 123. UCI(KEPA) : I410-ECN-0102-2012-350-002431458
- [7] Y. H. Lee, J. Y. Park. (2014).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self-esteem , self-efficacy , feminist group counseling. *Exchange Analysis Consultation Research*, 4(2), 79-103.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50025445801>
- [8] P. A. Thoits. (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epidemi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4), 341-62. DOI: 10.1002/1520-6629(198210)10:4<341::aid-jcop2290100406>3.0.co;2-j
- [9] I. S. Cho, Miwon Kim. (2002). Effects of a Social Support Program on Stress and Coping in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6(2), 211-228. UCI : G704-000928.2002.6.2.008
- [10] J. K. Jeong, Y. H. Park (2012).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Behavior among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of Yonsei University*, 32(0), 29-52.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5895505>
- [11] S. Cohen, &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57. <https://doi.org/10.1037/0033-2909.98.2.310>

- [12] O. I. Park, K. S. Kim, K. H. Lee. (2017). *Women's Welfare*. Kyeonggi. Knowledge Community.
- [13] I. S. Lee. et al. (2016). "2016 Domestic Violence Survey".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vailable from: <http://www.prism.go.kr/> (accessed Sep. 28, 2020)
- [14] H. J. Baek. et al. (2017). "2017 Youth Comprehensive Survey".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vailable from: <http://www.prism.go.kr/> (accessed Sep. 28, 2020)
- [15]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and Company.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20140280?pq-origsite=gscholar&fromopenview=true>
- [16] S. T. An, H. N. Lee. [2018]. Use of Mobile Mental Health Application for Mental Health Based on the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Korea Journal of Journalism*, 62(6), 167-94. DOI : 10.20879/kjics.2018.62.6.006
- [17] A. Bandura, (1978).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Adv. Behav. Ther*, 8(1), 139-161. [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02-4](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02-4)
- [18] T. H. Holmes, R. H. Rahe.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 Res*, 11(2), 213-8. [https://doi.org/10.1016/0022-3999\(67\)90010-4](https://doi.org/10.1016/0022-3999(67)90010-4)
- [19] Y. S. Shim, S. H. Kwon, J. K. Lee. (2013). The effect of elite athletes' intention to drop out of exercise and fear of failure on athletes' satisfaction through social support and care.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5(3), 83-91. UCI(KEPA) : I410-ECN-0101-2014-690-002766775
- [20] D. H. Park, Y. T. Oh, S. U. Kim, S. J. In, M. H. Yang. [2017].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chievement Stress, Athlete Engagement, and Dropout Intention among Kumdo Athletes :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19(1), 49-65. DOI : 10.35277/kama.2017.19.1.49
- [21] T. M. Moore, (1998). A Workplace Stretching Programe. *AAOHNJ*, 46(12), 563-68. <https://doi.org/10.1177/216507999804601201>
- [22] J. Y. Kim, Y. K. Jung, K. Y. Lee. (2008). Impacts of Repeated Victimization from Domestic Violence on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s : Focusing on Wives Whose Husbands Participated in th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for Family Violence Perpetrat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8), 85-95. UCI : G704-000012.2008.46.8.005
- [23] G. H. Na. (2017). The Effect analysis self reliance on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victim shelter and the psycho-social factor :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women's studies*, 28, 56-72.
- [24] H. S. Park, S. Y. Im. [2016].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n the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International Theological Journal*, 18(0), 263-295.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0600>
- [25] M. G. Kang, S. J. La, S. Y. Ryu. (2008). Intention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a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2(2), 212-227. DOI : 10.21896/jksmch.2008.12.2.212
- [26] R. M. Ryckman, B. Robbin, & P. Cantrell, (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hysic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5), 891-900. <https://doi.org/10.1037/0022-3514.42.5.891>
- [27] J. W. Park. (1985). *Work research to develop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8] C. B. Cho. (2012). The Influence of The Adolescent's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on Sexual Assault : Mediating Effects of The Contact Degree of Internet Obscenity *School of Social Welfare, Sungkyul University*, 32, 145-172. UCI : G704-SER000002119.2012..32.001
- [29] C. B. Cho, N. H. Cho. (2011). Child abuse , Family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 School violence commit experience ,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75-102. UCI(KEPA) : I410-ECN-0101-2016-334-002820857
- [30] J. A. Choi. (1992).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Problem-Focusing on the Violence Between Couples. *Family science research*, 10(0), 91-108.
- [31] K. I. Kim. (1987). Countermeasures against beating wife. *Mental Health Research*, 6th.
- [32] H. S. Kang. (2010). Effectiveness on Self-efficiency and Parental Stress by Psychodrama about Batter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sychorama*, 13(2), 21-33. DOI : 10.17962/kjp.2010.13.2.002
- [33] E. J. Kim, K. M. Cho. (2011). A study on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buse victim and the perception about severity child abuse of nursing students. *Play Therapy Research*, 15(2), 97-109. UCI : G704-001383.2011.15.2.008
- [34] G. S. Oh. [2014]. *Cognition of Marriage and Child Birth and Influencing Factors to their Intention among Korean Women*. Master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Gyeongnam.
- [35] Statistics korea. (2017). *Domestic violence*.
- [36] B. G. Cheon, M. J. Keum, C. H. Park. (2018). Effect on

the social support is a learned helplessness and will of independence of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t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8(11), 449-457.

DOI : 10.35873/ajmahs.2018.8.11.043

[37] H. S. Kim, H. J. Kim, J. H. O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rital quality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Journal of Family and culture*, 22(3), 97-127.

DOI : 10.21478/family.22.3.201009.004

[38] S. M. Jang, J. H. Kim. (2012). Family Violence and th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Moderating effects of Positive attitude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35(0), 173-202.

DOI : 10.16975/kjfs.2012..35.006

[39] S. O. Hong. (1996).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Exercise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Changes in Sex Role Type*. Doctori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이 연 숙(Ryoun-Sook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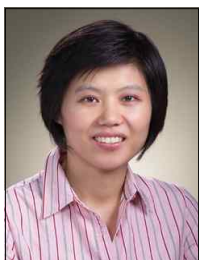
[정회원]



- 2003년 : 가천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18년 : 전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가정폭력
- E-Mail : bomrk@naver.com

이 경 희(Kyung-Hee Lee)

[정회원]



- 2004년 : 日本 立教大学大学院 (사회 복지학석사)
-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여성인권
- E-Mail : kyunhee98w007@suncheon.ac.kr

오 진 영(Oh, Jin Young)

[정회원]



- 2010년 : 경상대학교(간호학 석사)
- 2016년 : 경상대학교(간호학박사수료)
- 2016년 3월 ~ 2020년 8월 : 순천제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건강교육
- E-Mail : julia4197@naver.com